은행

Sector Issue Brief 2025. 12. 30

11월 가중평균금리 동향: 수신금리 큰 폭 상승

Check Point

- 신규 예대금리차 3 개월째 반락
- 대출, 예금금리 동반 상승
- 26 년 조달비용 방어역량이 관건. 금리인하 사이클 종료는 긍정적

| Analyst **전배승** | bsjun@ls-sec.co.kr

수신금리 급등으로 신규 예대금리차 큰 폭 하락. 잔액 예대금리차 흐름은 견조

▶ 2025년 11월 예금은행 신규 예대금리차는 1.34%p(총대출-저축성수신)로 10월 대비 11bp 큰 폭으로 하락하며 9~10월에 이어 하락추세를 이어감. 신규 대출금리가 13bp 상승하며 25년 들어 처음으로 반등했으나 저축성수신가 시장금리 상승과 연말 은행권 자금조달 수요확대로 24bp 급등하면서 신규 예대금리차가 축소됨

▶ 은행수지에 보다 유의미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총대출-총수신)의 경우 2.19%로 11월 대비 1bp 반등하며 26년 5월 이후 2.18~2.19% 수준을 유지. 신규취급액 기준과 달리 잔액기준 총수신금리는 하락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11월 -1bp) 11월 들어 대출금리 하락세가 일단락되면서 잔액 NIS가 1bp 반등

▶ 11월 신규 가계대출 금리는 4.32%로 전월대비 8bp 상승하며 25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특히 주담대 금리가 4.17%로 19bp 상승했으며 신용대출 금리는 27bp 급등. 11월 중 가파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신규 코픽스 금리가 24bp 급등한 데다 가계대출 한도소진 및 규제효과가 더해진 영향. 기업대출 금리 또한 4.10%로 14bp 상승했으나 가계대출에 비해 절대금리 수준은 여전히 낮게 유지되고 있음

▶ 신규 저축성수신 금리의 경우 11월 중 2.81%로 24bp 상승하면서 9~10월의 월(+3~5bp)에 비해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됨. 정기예금과 시장성 수신, 금융채 등 수신상품 전반의 조달금리가 20bp 이상 상승

26년 금리인하 사이클 종료로 NIM 전망 긍정적. 조달비용 방어가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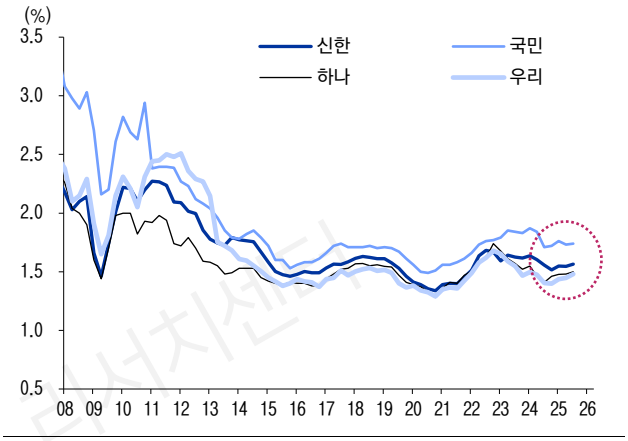
▶ 12월 들어 시장금리 상승 폭이 다소 누그러지고 연말 은행권의 수신조달 수요 집중이 완화되면서 연초 이후 신규 예대금리차의 추가적인 하락 폭은 둔화가 예상됨. 다만 수개월간 축소된 신규 예대금리차가 시차를 두고 잔액 예대금리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잔액 NIS 또한 하락압력이 우세

▶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기대감은 26년 은행권 NIM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가계대출의 경우 내년에도 규제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주요 은행들이 2% 수준의 낮은 성장목표를 세우고 있어 가산금리 확보에 긍정적 환경. 예금금리(조달금리) 하락세가 일단락된 가운데, 자본시장 및 최근 대형 증권사의 IMA 상품 등 수신자금 이동 가능처가 확대되고 있어 26년 은행권 조달비용 방어역량이 보다 중요해질 전망

그림1 시장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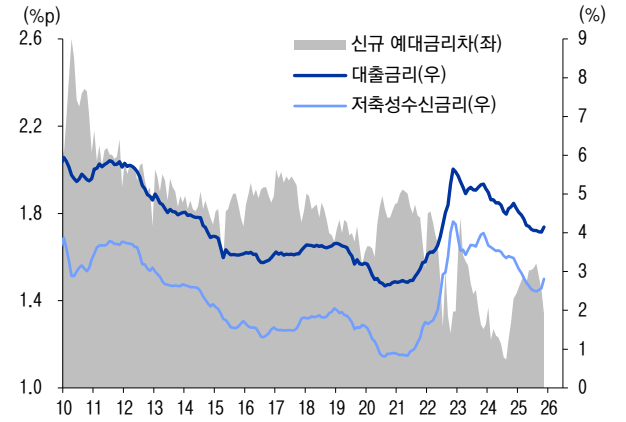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은행별 분기 NIM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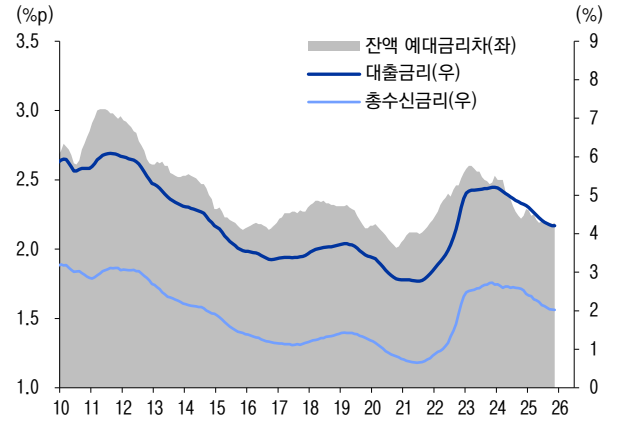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

그림3 신규 취급액기준 예대금리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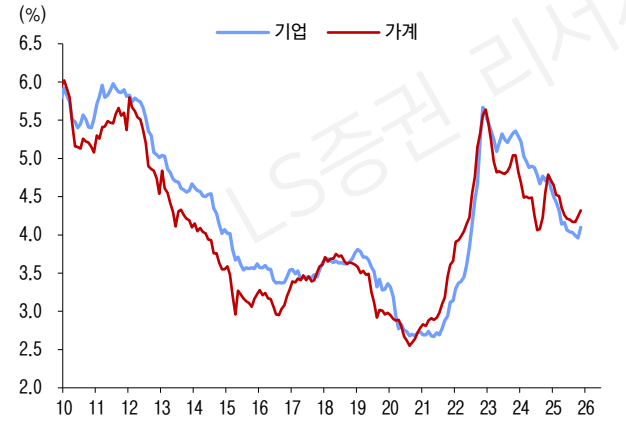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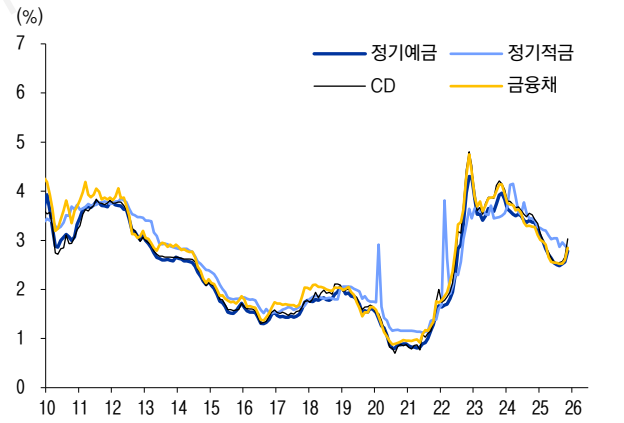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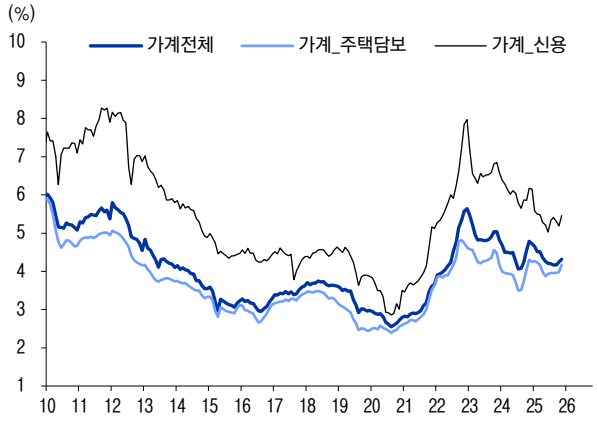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부문별 수신금리(신규취급액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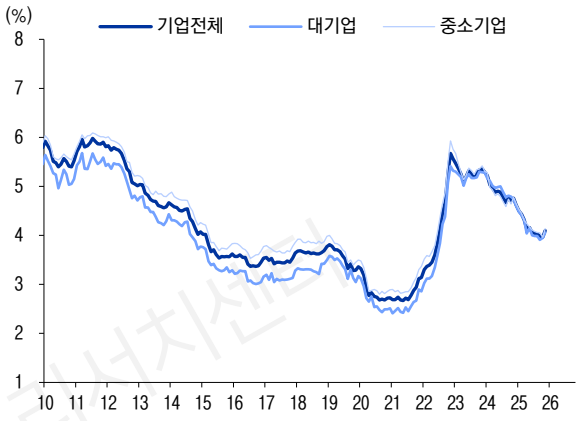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가계대출 부문별 금리(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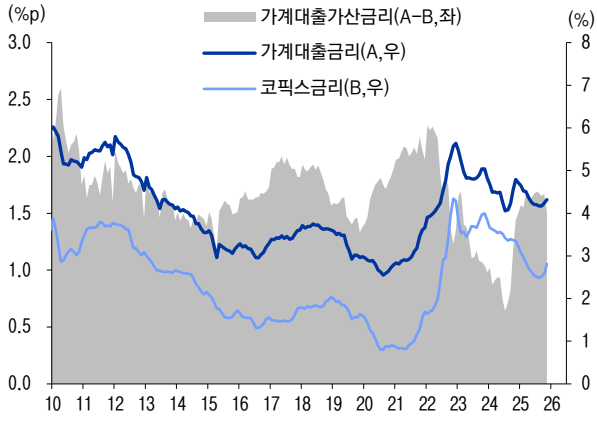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기업대출 부문별 금리(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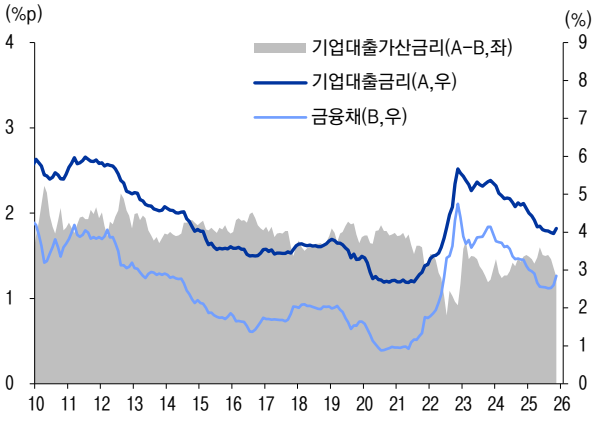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가계대출 가산금리(신규취급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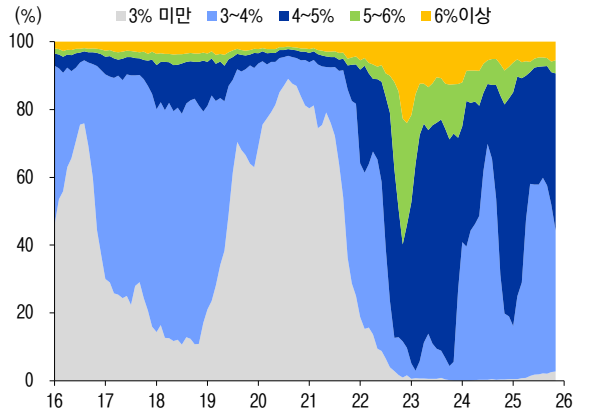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기업대출 가산금리(신규취급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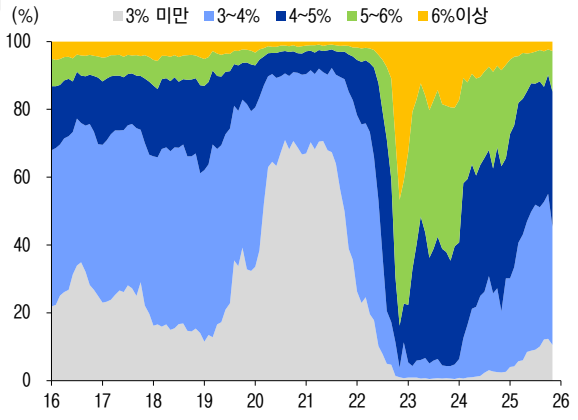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가계대출 금리별 비중(신규취급액)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정기예금 금리별 비중(신규취급액)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전배승).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 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 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15% 이상 기대 -15% ~ +15% -15% 이하 기대	89.4% 10.6%	2018 년 10 월 25 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15%로 변경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4. 10. 01 ~ 2025. 09.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 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